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청지기훈련은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의 잔치입니다!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

일시: 2009년 10월 23일(금), 저녁 7시

주제: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누가복음 23:34)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청지기훈련은 일부 직분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의 잔치입니다. 장년은 물론이거니와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정병으로 깨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청지기훈련입니다(딤후 2:21).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만남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골 1:9). 복음이 필요한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눅 14:23). 이제 12월 남았습니다!

장로피택자 주제발표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10월 16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과 재림, 그 예언과 성취”

제42대 장로피택자들은 지난 6개월간 정규 교육과 아울러 특별한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성경 66권을 통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요 5:39). 특히 작년 장로피택자 발표주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이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게 됩니다. 장로피택자들이 믿음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교육위원회 학제 개편, 다음 주일(10월 18일)부터 시행

초등1·2·3학년 → 초등1부(제1교육관 407호, 10:45)

초등4·5·6학년 → 초등2부(제1교육관 507호, 10:45)

중등1·2·3학년 → 중등부(갈릴리움, 10:30)

*자세한 내용은 7면 참조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7:1~6)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롬 5:20). 율법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

밑에 종노릇하게 하는 파괴하는 힘이 되었다(고전 15:56). 인류의 결론은 안타까운 사망이었다(고전 15:25~26). 이 사망은 죄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망에게는 죄가 인류로 쏘는 무기다. 이 쏘는 것을 가지고 사망은 인류를 그의 통치 아래 가두었다(롬 5:13). 영원토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 주심으로 끝을 맺게 하셨다(갈 5:1).

구원자가 오셔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롬 5장). 또한 죄로부터 자유(롬 6장), 율법으로부터 자유(롬 7장)하게 하셨으며 죽음으로부터 해방(롬 8장)시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권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율법의 권능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그 세력을 쉽게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롬 6:14).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갈 4:3~6).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관하여, 7장에서는 율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로마서 6장과 7장을 비교하면 우리는 바울이 죄와 율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할 때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또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표현한다(롬 6:7). 7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다룬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서 자유해진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롬 7:2~4). 율법이 죽은 것이나 폐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냐(마 5:17~1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한다(롬 6:7~8).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1절 죄	율법	1절
2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4절
4절 우리로 새 생명의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길 것이다	6절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6절
18절 죄에서 해방되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	3절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음은 우리가 다른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전 12:13; 롭 7:5~6).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육신에 거하는 삶에서의 율법은 죄의 정욕을 일으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육신에 있을 때도 율법은 죄를 자극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큰 힘이었는데 율법 자체는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인간을 속박하고 파괴하는 멸망의 권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중요한 증표다(롬 7:6).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HOW TO PRAY FOR THOSE YOU LOVE

⁽⁹⁾For this reason also, since the day we heard of it, we have not ceased to pray for you and to ask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¹⁰⁾so that you will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to please Him in all respects,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¹¹⁾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for the attaining of all steadfastness and patience; joyously ⁽¹²⁾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us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Colossians 1:9-12)

Paul had a deep love for the Colossian church. He told them in his letter, "We give thanks to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praying always for you, since w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 and the love which you have for all the saints; because of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of which you previously heard in the word of truth, the gospel"(Col. 1:3-5). Paul felt close to this church, even though he was a far distance from them he rejoiced in their faith,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Paul not only mentioned that he prayed for them, but he specifically told them what he prayed to God about them. Today's Christians pray for others, but what exactly are they praying for? The details of Paul's prayers for the Colossian church should help us with our own prayers. Let's look at what Paul prayed about, so that we can ensure that our own prayers for those we love are in-line with our faith in Jesus Christ.

The first thing Paul prayed was for the Colossian church to know God's will. He didn't ask God for his own desire or even for their desires. He said, "For this reason also, since the day we heard of it, we have not ceased to pray for you and to ask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Col. 1:9). This needs to be the beginning of all our prayers! Jesus asks us to deny ourselves, so that we can look at what is His will. When praying for our loved ones, we tend to ask God for the things we want or the things we think are good, and forget that it is God's will that is always best. Paul could have prayed for the Colossian church to prosper, gain political power, or even for them not to be persecuted, but he understood that knowing God's will is more important than any of these other things. Honor, health, and respect are not bad things, but if you know God's will that is for eternity, that is for salvation. It's so easy to get involved with earthly things like culture, sports, economic issues, religion, neighbors, family, business, education, recognition and the like, but being filled with the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to know God's will is utmost. Jesus said,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Jn. 6:29). He also tells us,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behold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I Myself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Jn. 6:40). What could be greater than God's will for a loved one?

The second thing Paul prayed was for the Colossian church to know how to walk with God. He said, "so that you will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Col. 1:10). In other words, Paul was asking God to give the Colossian church the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to know His will, so that they could walk in His

ways.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means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which results in godly fruitfulness, increased knowledge of God, strength to endure, and thankfulness. We gain spiritual understanding through prayer, Bible study, and worship. Galatians 5:16 reminds us,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carry out the desire of the flesh." We are all born with a sinful nature and it is never eradicated in this life, but it can be controlled by the Spirit. When we depend on the Spirit, we can have victory over the flesh. When we let the Spirit control us, then we can walk in love. Ephesians 5:2 says, "and walk in love, just as Christ also loved you and gave Himself up for us" and Ephesians 5:8 says, "for you were formerly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When we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others do notice, and we become fruitful in His work. What could be better than praying for a loved one to walk in God's ways?

Finally, Paul prayed for the Colossian church to know God well. He said, "to please Him in all respects,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for the attaining of all steadfastness and patience; joyously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us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Col. 1:10-12). When you know God's will and walk in His ways, then you increase your knowledge about Him. It's not just about knowing God more, but rather knowing God more intimately. Philippians 3:7-11 say, "But whatever things were gain to me, those things I have counted as loss for the sake of Christ. More than that, I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ish so that I may gain Christ, and may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derived from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comes from God on the basis of faith,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being conformed to His death; in order that I may attain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What a powerful statement of faith! Paul grasped the treasure found in knowing God well. This should be our goal. What could be!

My dear friend, how well do you pray for those you love? Do your prayers center only on temporary things? Let's pray for those we love to know God's will, to walk in God's ways, and to spiritually grow closer each day to Him. If you really love somebody, then pray for their salvation and eternity. Amen. 

다음 주일 설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¹⁹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9~12)



김성관 목사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골 1:3~5). 바울은 골로새교회를 친숙하게 느꼈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대하여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줄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도를 향한 믿음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제목은 골로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나 골로새 교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들린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성령한 것들과 총명해 하나님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하시고"(골 1:9).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간구하다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번성하고 정치적 권력을 얻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 건강, 존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생과 구원에 있습니다. 문화, 스포츠, 경제 문제, 종교, 이웃, 가족, 사업, 교육, 사회적 인정 등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다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는 영적인 지혜와 이해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요 6:29).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40).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제목은 골로새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골 1:10). 다시 말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찬양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찬양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이해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은 신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내하는 힘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령 공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이해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5:16은 우리를 길게워줍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에 의존할 때 우리는 욕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2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5:8은 밝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기도해 맺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또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법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본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 1:10-12).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기에서 길을 때 주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갑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7~11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얼마나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발견할 수 있는 보화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지나갈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구원과 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라고, 인내하며

수요1부예배 메시지 / 메시아의 죽음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10. 7)

선교지로 오세요 (사도행전 16:6-10)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행 16:6-7).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왜 막으셨는가에 대한 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울 때 생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며 결정하신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초대 교회의 복음전파와 사역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행 2:38, 41, 47). 주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는 달랐다. 따라서 성령님은 그의 걸음을 막으셨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 주셨다(행 16:8-10).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로 그를 이끄셨다.

●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선교지로 불러주고 있다** 마케도나는 우상으로 가득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반해 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선교계획을 세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9). 그 상과 있던 마케도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 지역이었다(렘 2:12). 그러나 그를 포함한 마케도나의 영혼들은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 많은 영혼들의 호소가 들리는가? 만약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귀가 세상의 권위와 명예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막힌 귀를 열고 우리를 선교지로 부르는 많은 영혼들의 외침을 듣자. 지금,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롬 10:14).

●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름에 곧 응답한다**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행 16:10).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오직 복음에만 헌신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던 율법, 전통, 명예, 권위를 배설물로 여겼으며, 사랑하는 가족도 복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롬 9:1-3). 그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대도 순종했다(행 16:11-12).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르심에는 항상 핍박이 따른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마케도나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루디아를 만나 복음의 거처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커다란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행 16:13-15). 접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바울을 관청에 고발하였다(행 16:16-21). 결국 바울은 거의 죽을만큼 심한 매질을 당한 뒤 옥에 갇혔다(행 16:22-24). 이처럼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바울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부름에 곧 응답했다. 지금, 이와 같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들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 **주위를 바라보자** 옥에서 정신을 차린 바울은 함께 했던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이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행 16:25-26).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자살을 하려던 간수를 막았으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행 16:27-32). 바울은 잠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위를 바라보았기에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세상이라는 발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마 13:38). 그리고 이제 추수를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우리는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살고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요 4:36).

“선교지로 오세요!” 이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선교지로 불러주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자. 단지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떠, 버려진 영혼들이 있는 주위를 바라보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메시아의 죽음 ①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 (마가와 마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종교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마 26:60-61, 65).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말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박지르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웃을 짓으며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다. 경건한 종교인들은 권위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다. 또한 로마 정권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유대인의 왕 예수”(마 27:27)라는 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폭동주의자의 한 사람쯤으로 여겼다. 모든 재판과정을 주도한 총독 빌라도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고난만 줄 뿐이었다. 그들은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는 모두 도망쳤다(마 14:53-42, 49-52).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14:36). 이 기도에는 고난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할 뿐이었다.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마저 어찌하시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느끼는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호소였다. 예수님이 가진 고난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없었다. 종교인들, 제자들, 로마 정권,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듯한 모습에 무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성소위장이 찢어지는 일로부터 부활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증거들은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인류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 것이다(막 15:38-39).

결국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의 필요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 종교인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을 위한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함을 요청받는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로 준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와 열 백부장처럼 고백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마 16:16-18, 27:54). 여전히 세상은 거짓 증인을 세워 우리를 미혹하며 핍박할 것이다(마 28:15). 모든 세력이 예수님을 대항하며 고통스럽게 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운 십자가의 주인” 아멘.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처음 선교를 하면서 많이 떨렸었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진짜 숨이 막혔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더 더웠기 때문이다. 공항 앞에서 기사 아저씨를 만나 차를 타고 무사히 선교지에 도착했다. 첫날은 사역을 못하고 숙소에서 잤다. 둘째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도하기가 힘들었다. 난 우산 대신 비옷을 갖고 왔는데 비옷이 찢어지고 신발이 다 찢었다.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 전하자'라는 말이 그때만큼은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었다.

셋째 날도 비가 왔는데 둘째 날보다는 덜 왔다. 열심히 전도하고 차를 타고 가자 무슬림 마을이 나왔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마을로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했다. 하지만 선교지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웠다.

넷째 날은 사역 중에 가장 힘든 곳을 갔다. 모든 길이 거름 밭인데, 다 질척질척하고 밭이 폭폭 빠져서 우린 그곳을 아마존이라 불렀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호스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셔서 감사했다.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 잠들었다. 다들 피곤했나 보다. 공항에서 운전기사 아저씨와 헤어질 때 섭섭했다. 다음 선교 갈 때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

박전민(중동1부)

복음의 씨앗

건강상의 문제로 4~5년 동안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해 수술을 받고 건강을 주셔서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몸이라도 아프면 팀원들에게 방해될까 싶어 기도하며 사역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만세 전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까지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단비로 축축히 젖은 땅에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나듯 그들의 맑고 순수한 마음판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 모두 우리를 반기기만 하고 있었고, 전도지를 읽으며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그곳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옥도와 같은 밭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보내어 씨를 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철보(본사, 10교구)

함께 천국에서 만나길

정말 골짜기였던 날들이었다. 이번 선교가 처음인 나에게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은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다는 것, 그것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말 무슨 한 편의 영화같이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하다. 어느 순간 내가 웃고 있고,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준비하는 동안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참 컸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역하는 동안은 다 잊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선교에만 집중하게 해 주셨다.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불편한 마음과 근심, 걱정으로 참 컸었을 것이다.

참 좋은 팀장님과 팀원들을 만나서 행복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되어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던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첫 사역이 좋아서 나중 사역에서 시험들지 모른다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팀원들이 얘기해 주었는데, 첫 사역을 대학부팀으로 가게 되어 기쁘다. 서기를 맡아 나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던 팀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맑은 안 통하지만 마음은 같다는 것과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할 땐 정말 힘이 나고 무엇보다 기뻐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천국에 가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깨달은 게 참 많다. 한국에 가서도 선교지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길...

임성화(대학부)

몽골 초원에서

이연범(안수점사, 7교구)

몽개구름, 양떼구름, 이름 모를 구름들이
높게 낮게 수놓은 몽골 마를 가장자리 저편에
쌍무지개 보석처럼 눈부시네

이따금 쏟아지는 소낙비에
푸른 초원 생기를 띄고
오르락내리락 끝없이 이어지는 구름 아래
황금빛 밀밭 물결
초원의 평파로운 양떼 무리는
피곤함을 달래주네

그 옛날 초원을 달리던 기차는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 몽골 영혼 사랑하사
우리를 보내셨네

넓고 넓은 벌판 달려 갈 때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초원
날 오라 손짓하고
저 멀리 동실 몽개구름 날 부를 때
몽골 초원 만가운데 뭇 영혼들 만났네
주님이 보내 주셨네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5일(월) - 10월 13일(화)	20교구 3팀	김기홍
10월 6일(화) - 10월 14일(수)	22교구 3팀	구창희
10월 7일(수) - 10월 15일(목)	1교구 3팀	이희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2일(월) - 10월 21일(수)	16교구 4팀	이정현

회개할 것뿐인데 어찌할꼬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하며 멀리 하던 중 그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 사모 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친구에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발안간 등이 ‘찌리리’ 하며 전기가 통하는 것 같으면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는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못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등록하여 나뉘대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구역예배,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교회봉사도 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받았고 남편과 두 아들도 세례 받고 목사님 누리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멀다는 핑계로 새벽기도회는 물론 수요예배, 금요찬양집회, 교회봉사도 점점 멀리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새 내려갔습니다. 손에 굳은살이 생기고 쥐가 나도 열심히 신구약을 완결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비롯해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었구나! 회개할 것뿐인데 어찌할꼬...’ 생각하던 차에 믿음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난 친구라 그런지 자존심, 경쟁,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다. 은혜와 감사, 회개와 기쁨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만나고 하루의 힘을 얻으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님은 진짜, 진짜이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김진희(집사, 24교구)

메시아의 죽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된 것일까? 왜 세상에 오셔서 살면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으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전지전능하신 신의 위치에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그랬을까? 혹시 무슨 모험을 즐기기 위하여 그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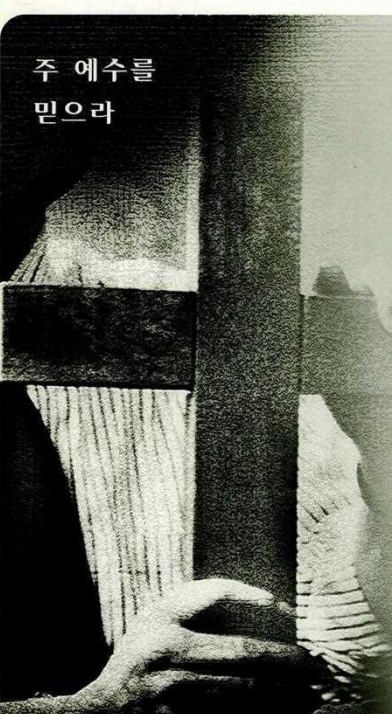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홀쭉하고 존경받은 전능의 왕, 황제를 포함한 많은 신이 있었으며 이들은 한결 같이 부귀영화와 건강장수를 누렸습니다. 인간은 이들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온갖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며, 신들은 인간들의 안위를 위하여 구성되어진 소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아닌, 역사 속의 실존 인물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월요새벽기도회의 말씀이 마련된 것을 감사하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는 고난과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야 하며, 만일 이해 못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남들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남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우리가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메시아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세상의 삶 어느 곳에서든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의 죽음임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박석산(인수집사, 7교구)

주 예수를 믿으라



충현교회 교인이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니. 내가 죄인인 것 모르지 않아.’ 라며 그저 영무새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하라게 주셨습니다.

언니가 충현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1년 전의 일입니다. 간혹만 부탁으로 언니는 마치 못해 교회에 몇 번 나왔지만 집 근처 교회에 다니겠다고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지기 몇 해 전부터 집 근처 교회에 다니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전례를 통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그 누구의 마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5월, 언니는 말기만 평생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여 수술을 시도했지만 수술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던 언니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시간은 참으로 합들과 복잡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니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서 “빨리 죽어라”는 소리가 들리며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몸의 통증도 점점 더 심해져 자신의 몸조차 가늠 수 없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언니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하라하여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언니의 죽을 앞에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며 형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지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그 상처와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나 슬프고 아팠지만 이 일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오고 계십니다. 또한 언니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것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주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을 언니를 생각하며, 이제는 불쌍한 마음으로 형부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김진선(집사, 15교구)

제1교육원회 학제 개편, 다음 주일(10월 18일)시행

효율적인 복음교육을 위해 제1교육원회 소속 부서의 학제가 개편됩니다. 소속 학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복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이 개편된 학제는 다음 주일(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대상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편으로 예배실과 교사실이 변경되오니 잘 숙지에 주시기 바랍니다.



등반일 : 11월 1일(주일)

현재 교회학교	개편 교회학교	예배시간	예배실	교사실	찬양연습실
유년부(1·2학년)	초등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409호	408호
초등부(3학년)				410호	
초등부(4학년)	초등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509호	504호
소년부(5·6학년)				510호	
중등1부	중등부	오전 10:30	갈릴리홀	309호	304호
중등2부				310호	
중등3부					

다 부서 교사실 변경 안내 : 장년1부 505호 / 장년2부 405호 / 장년3부 308호 / 장년4부 305호



정치기갈법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릴 적 집안이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일학교 한번 안 가던 저에게 서울 사시던 큰 이모님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를 만날 적마다 권면하셨습니다. 그저 남에게 꽤 안 끼치고 나쁜 짓 안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성장한 저는 이모님의 말씀을 늘 귀담으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충혼교회 교인이었던 남편과 함께 주일이면 오래 교회에 가고, 금요일은 몇 모른 채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그야말로 초신자로서의 미약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부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이 금요일밤을 했을 때는 아파트 현관밖에 그분들을 세워두고 집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정도로 무지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을 또한 성숙하지 못했던 저를 당시 부지역장님과 구역장님께서서는 사람으로 감싸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적 인도를 통해 저는 실족하지 않고 서서히 교회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와 전화통화 중 “단기선교훈련 중이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너,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널 사랑하듯 사랑하니? 예수님을 모르는 채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있니?” 되돌아온 질문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심정으로 대답하지 못한 채 통화를 끝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은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은주야, 아직까지 너의 영혼은 잠들어있구나. 이제 깨어나 기도해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급급해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적이 더 많은 죄인의 모습이었었고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묵묵히 기다리며 지켜주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투성이인 저를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죄로써 거듭나게 하셨습니다(고후 5:17). 나의 행위와 열심과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면” 이 가능함을 알게 하시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27년의 믿음생활 중 참으로 곤고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옹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심이라”(시 37:24). 나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주안에서 참 민족과 평화를 누리며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전심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시 56:10).



박은주
(집사, 10교구간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80	이분순	1	장년1부	
1381	유태근	1	장년1부	
1382	박성태	7	장년3부	이인순(7)
1383	오민심	21	청년2부	정춘자(14)
1384	최해정	2	장년1부	한정희(2)
1385	이해웅	20	청년2부	유정자(9)
1386	김정복	20	청년2부	유정자(9)
1387	김성근	25	예배다부	문성목(18)
1388	권순연	25	예배다부	최정미(25)

* 충혼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손소독기를 이용하세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손씻기입니다. 문밖을 비롯하여 부속 건물 곳곳에 손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으니 수시로 이용하여 청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도난 주의



최근 교회 내에서 도난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적 탐이법의 소행으로 여겨지나 모든 성도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예배실(기도실)이나 식당에서 기도를 바친 채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 예배안내위원이나 아는 성도에게 밀려 도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